

성철 스님 법어를 랩으로... “소리 질러~!”

조계종 포교원, 11월 14일
조계사에서 ‘랩 창작곡 경연’

가을비가 서울을 적신 토요일 오후, 조계사 앞마당에는 성철 스님 법어가 랩으로 울려 퍼졌다. 낯선 풍경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들고 영상에 담았다. 낯은 낯이었지만 우산을 든 채로 명실명실 리듬을 타는 어르신들도 눈에 띄었다.

“아니, 어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한테도 어려운 성철 스님 법어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한다니 너무 대단합니다. 얼마나 연습했는지 완전히 자신의 가사로 소화한 모습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인선(여·63)씨는 조계사 대웅전을 찾았다가 노래 소리에 이끌려 객석에 앉았다. 무대가 끝날 때까지 비를 맞으며 자리를 지키면서 또 연신 흥에 겨운 모습이었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가 주최하고,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및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가 주관하는 ‘랩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 되다’가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 특별무대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포교원은 성철 스님 법어를 편사한 지경 가사 16개와 비트(MR) 5곡을 배포, 지난 10월 31일까지 창작곡을 모집 받았다. 이에 비공개 예선을 통과한 청소년부 및 일반부 19개 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다.

특별무대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가 하면, 일어나서 합창 제스처를 취하며 연습에 몰두한 사람도 있었다. 청소년 참가번호 4번 박주용(불이학교·1년) 학생은 “연습은 많이 했지만 떨린다”면서 “객석에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계시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가장 격정스럽다”며 사뭇 긴장된 모습이였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백련불교문화재단 및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주관하는 ‘랩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 되다’가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 특별무대에서 개최됐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특히 ‘힙합 꿈나무’들이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가 꼽이라는 경기국제방송고 조성재 학생을 비롯해, 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이를 전담 저녁 화순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온 조혜진 학생의 열의도 대단했다.

이들의 주무기가 패기와 풋풋함이라면 대학생 및 일반인 참가자들은 프로수준의 무대매너와 노련미가 돋보였다. 특히 일반인 참가자 중에는 현재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 중인 힙합 가수들도 몇몇 있었다. 2013년 ‘The Egobomb(더 이고밤)’이란 이름의 2인조 힙합듀오의 멤버로 데뷔한 최관우씨는 “팬소 잡고 못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길 바라는 것이 성철 스님 법어와 잘 맞아 곡을 해석했다”면서 “원래 음악에 종교 등 주관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막상 해보니 재밌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절에서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경연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마추어 무대인만큼 크고 작은 실수들도 있었다. 청소년 참가자 2번으로 무대에 오른 의정부 영석고 ‘Deall Zone’ 팀은 가사를 잊어버렸지만 서로 격려하며 무대를 내려오는 모습에 큰 박수를 받았다.

백련문화재단 및 파라미타 주관
비공개 예선 통해 19개 팀 본선
심사에 아웃사이드·MC메타 등
대상 상금 5백만 원 일반부 ‘김광희’

2시간 반 가량의 본선 무대가 끝나고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투탁&루팡’의 비트 박스 무대에 이어 랩퍼 아웃사이드와 MC 메타의 공연이 경내를 뜨겁게 달궜다. 대웅전 앞에서 힙합 음악을 들려피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가득 채워지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춰 세웠다. 한국을 여행 여행 다녔지만 사찰에서 힙합 공연이 열리는 것은 처음 본다”며 “낯설지만 매우 신나고 즐겁다. 열광적인 젊은 친구들을 보니 세상 불교가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상의 영예는 일반부 참가자 8번 김광희(남·26)씨가 차지해 상장과 상금 5백만 원을 거머쥐었다. 성철 스님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로 무대를 펼친 김 씨는 현재 ‘하이저’란 예명으로 홍대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 등을 펼치며 활동하고 있다. 김



대상의 영예는 일반부 참가자 8번 김광희(남·26)씨가 차지했다.

씨는 “오늘처럼 큰 상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 봐서 매우 떨리고 기쁜 마음이 공존한다”면서 “법어로 가사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막상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실제로 득도한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금상- 청소년부 박주용, 일반부 장문복 △은상- 청소년부 조혜진, 일반부 최관우 △동상- 청소년부 조영근, 일반부 전상운 △인기상- 청소년부 108번, 일반부 대광효와이들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심사위원에 나선 가수 아웃사이드는 “누가 더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혼자 가사를 해석하고 곡을 작업하며 느낀 깨달음을 관객과 얼마나 잘 나누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참가자들 모두가 힙합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밖에 심사위원으로는 윤소희 작곡가,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작곡가, MC메타, 박지훈 음악프로듀서 등 함께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원택 스님은 “‘힙합’이란 젊은이들 문화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었다”면서 “조계사 앞마당에서 성철 스님 말씀을 대중들에게 전하게 돼 매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이름 기자**

“간화선 세계화 중심 도량되길”

서울 국제선센터, 15일 개원 5주년 법회 개최

한국불교 세계화와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 사찰인 신정동 국제선센터가 개원 5주년을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15일 경내 큰법당에서 ‘개원 5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과 길정우 양천 지역구 국회의원(새누리당),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탄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곳에 주지로 부임해서 3주년부터 5주년까지 3년여 동안 기념법회를 하고 있다”면서 “도전과 변화도 많았지만 여법하게 사찰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앞으로도 국제선센터가 여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는 역할은 국제선센터가 해야 할 의무”라면서 “사부대중이 일심화합하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길정우 의원과 김기준 국회의원이 각각 축사를 통해 찾아가는 포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국제선센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 함께 법회 참가 대중들은 국제선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발원문을 함께 봉독했다. 신도 대중들은 김영구 운영위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15일 경내 큰법당에서 ‘개원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과 주지 탄웅 스님 등 내외빈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는 모습.

원과 이정희 극락전 팀장 부부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청정도량 국제선센터와의 인연으로 백천만길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만나 보살의 구도 정신을 본받아 정진해왔다”면서 “국제선센터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슬기로운 도반과 신행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그간 사찰 발전에 공헌을 한 봉사자 등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주지 스님상에는 조계종 법당봉사팀장과 꽃꽂이 봉사팀·후원공양팀이, 포교원장상에는 박금숙 합창단장이, 총무원장상과 특별공로상에는 정혜린 사찰운영위원회 총무가 각각 수상했다.

법회 후에는 신도 자녀와 국제선센터 합창단, 어린이법회의 공연이 있었으며, 국제선센터와 협약을 맺은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네일아트를 무료로 시연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8선지식 찾아 떠나는 구도순례 ‘START’

정법빠리사, 11월 15일 보광정사에서 입재식... 2033년 회향

재가자 수행모임 정법빠리사가 실시하는 ‘108선지식 구도순례’가 첫 문을 열었다.

정법빠리사(대표 정은용)는 11월 1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보광정사에서 ‘108선지식 구도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석가사 주지 현봉 스님, 이수덕 前BTTN 사장을 비롯한 정법빠리사 회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정법빠리사가 격월에 한 번씩 국내외 선지식 및 수행처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18년 후인 2033

년 회향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례일정은 11월 21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학림사 오동선원(조실 대원)에서 진행된다.

정법빠리사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과 해안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구도순례를 통해 국내외 출세가 선지식 뿐만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인 등 방방곡곡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법빠리사(대표 정은용)는 11월 1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보광정사에서 ‘108선지식 구도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정법빠리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보광정사에서 정기 수행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박이름 기자**

광진노인복지관, 템플스테이로 ‘마음힐링’

11월 13~14일 전북 송림사에서... 직원 40여 명 동참

고된 업무에 지친 불교계 복지관 종사자들이 1박 2일 템플스테이에 참여, 심적 위안을 찾았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1월 13~14일 전북 익산 송림사(주지 지광)에서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직원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간 발우공양 습의, 스님과 차담, 참선 수행, 108참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고품격나무 덕양정 및 입적리 고분 유적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이지연씨는 “다른 템플스테이와 다르게 주지 스님께서 직접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사찰 역사 등에 대해 안내해주시는 덕을 봤다”며 “서울을 벗어나 맑은 공기와 자연경관을 만끽하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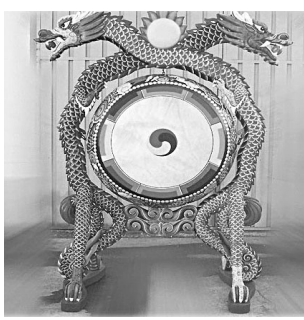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1월 13~14일 전북 익산 송림사(주지 지광)에서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송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신입사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 부모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공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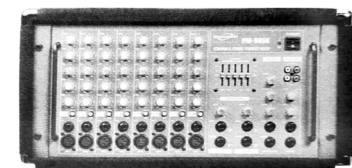
www.yangjikukak.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 watt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셋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헤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주지스님 마이크 1대 · 무선 빈 마이크 + 헤드셋 셋트 1개 · 사형지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음브케이스 1개 · CD기 1대

◆ 특징 : 지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빈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